



자연이 숨쉬는 아라리의 고장, 정선

강
육
자유기고가

아리랑으로 상징되는 정선군(旌善郡)은 강원도의 동남쪽 산간 지대에 자리 잡은 오지의 고장이다. 태백정맥의 단전에 해당 하는 정선(旌善)은 사방이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남한강 상류의 지류들이 골짜기마다 흐르고 있어 계곡에만 다소 길다란 경지가 있을 뿐이다. 정선은 면적의 약 87%가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 속의 골짜기마다 넘치는 물이 있어 여기 사람들의 생활은 자연히 산과 물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조선중기의 인문지리학자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地)』에서 “무릇 나흘 동안 길을 걸었는데도 하늘과 해를 볼 수 없었다.”고 정선 땅의 가파른 산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선군의 산세를 살펴보면 해발 1,000m 이상의 산이 많다. 동쪽으로는 중봉산(1,284m)·문래산(1,082m)이 있고, 서쪽으로는 가리왕산(1,561m)·청옥산(1,256m),

남쪽에는 예미산(989m)·백운산(1,426m), 함백산(1,573m), 북쪽에는 노추산(1,332m)·석병산(1,055m)·박지산(1,394m), 중앙부에 민둥산(974m)·고양산(1,151m) 등이 있다.

어느 곳이거나 물을 끼고 들이 이루어진 곳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듯이 이 군의 그런 곳에도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임계천과 구절천이 아우러지는 냇가의 들판에 고인돌 다섯 개가 남아 있고 그 물줄기가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대천과 만나는 곳, 곧 북면 남평리의 냇가 들판에 고인돌 세 개가 남아 있다. 또, 신동읍 덕천리 강가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굴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정선읍은 뒤의 비봉산을 진산으로 하고 조양강이 남서쪽으로 흘러 신동읍을 지나 영월땅으로 들어간다. 한때 영월댐 건설 여부로 문제가 되었던 동강은 영월에서 불

때 동쪽에서 흘러온다 하여 의미 없는 이름의 「동강」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선 조양강은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음강(大陰江)’으로 표기되었으며 이후의 지리서에는 모두 오동나무 「동(桐)」자를 쓰는 ‘동강(桐江)’으로 나오고 있다.

이 물줄기를 타고 심산유곡에서 배어진 황장목은 아우라지 강가에서 뗏목을 엮어 보름이나 한 달을 달려 광나루, 송파나루, 노들나루, 양화나루, 행주나루까지 옮겨져 궁궐이나 사대부가의 재목으로 사용되었다.

정선군 고한읍 소재 함백산 기슭에는 정암사가 있다. 이 절은 신라 때의 이름난 중자장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창건했다고 전해 오는데 경내에는 보물 410호로 지정된 수마노탑이 자리잡고 있다. 이 절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나라 안에 다섯밖에 없는 이른바 적멸 보궁에 들며 여느 적멸보궁과 마찬가지로 불상을 모시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수마노탑은 수마노 곧 석영의 한 가지인 매우 단단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 광물로 쌓은 탑이다. 자장이 서해에서 건져온 수마노로 쌓았다고 하는 것으로 뒤에 여러 차례 고쳤기는 하나 썩 아름답다.

이 절 앞의 골짜기에 흐르는 물에는 세계에서 드문 물고기인 열목어가 살고 있다. 천연 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있는 열목어는 연어과에 드는 물고기로 다 자라면 길이가 60~70cm에 이를 만큼 깊은 산골짜기의 내에 사는 물고기치고는 꽤 큰 몸집을 지녔다. 열목어는 그 이름이 말해 주듯

이 눈에 열이 많이 나서 찬물에만 산다고 하는데 그 맛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배는 흰 빛깔을 띠고 등은 붉은 빛깔이 도는 갈색을 띠며 온몸에 흑갈색의 점이 박혀 있어서 보기에 꽤 아름답다.

열목어는 성질이 까다로워서 오염되지 않아 맑고 깨끗할 뿐더러 한여름에도 수온이 섭씨 20℃를 넘지 않는 물에서만 사는데 이곳이 예전에는 그런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꽤 많이 살았는데 요새는 점차로 수효가 줄어들고 있다. 그 까닭은 탄광이 개발됨으로써 물이 오염된 데다가 울창했던 나무를 마구 베어냄으로써 물의 온도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 몰래 잡아먹은 양도 적지 않았던 데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가 많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명사 십리가 아니라며는 해당화는 왜 피며/모춘 삼월이 아니라며는 두견새는 왜 우나/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것은 오백 가지가 넘는 정선 아리랑의 노랫말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정선 아리랑은 ‘아라리’라는 이름으로 정선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 충북지역, 경기도 동부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구비전승 되어온 민요다.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가 망한 후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다짐하던 선비들이 송도(松都)에서 은신하다가 그 중 7명이 정선(지금의 남면 거칠현동)으로 은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들은 지난날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맹세하여 일생 동안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입지 시절의 회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을 한시로 지어 율창(律唱)으로 부르곤 했다. 이들이 지어 비통한 심정을 담아 부르던 시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소리 가락에 실려 애절함을 더해갔다.

정선아리랑에는 시대정신이 그대로 배어 있다. 그러면서 남녀간의 사랑과 그리움, 남편에 대한 원망, 시집살이의 서러움, 고부간의 갈등, 산골마을의 지난한 삶, 때 타는 일의 고단함과 유희 등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러움과 울분을 애절한 가락에 담아 불렀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자 반공(反共)의 분위기를 드러냈고,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르기도 했다.

강원도 감자 바우가 제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정선 아리랑만큼 한국인들의 가슴 속 깊이 강원도의 서정을 연상시키는 것은 드물 것이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로 시작되는 발랄하면서도 똑똑한 밀양아리랑이나 “문경 새재는 왜 고개인가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 난다”는 신명난 진도아리랑은 부르는 이들에게 기교나 화려함을 요구하는데 비해 정선아리랑은 누구에게나 애처로움과 유장한 느낌

이 들게 한다.

정선아리랑은 가파른 산비탈에서는 노동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잔치 때면 어깨춤에 덩실덩실 잘도 넘어가는 소리였다. 새록새록 잠든 손자 손녀에겐 자장가가 되었으며 남녀간엔 말 못할 사랑을 주고받는 언어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구전되어온 정선 아리랑은 1971년 12월 16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강원도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 되었고, 체계적인 전승과 보전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아리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아리랑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정선군에서는 매년 10월 초 ‘정선 아리랑제’를 열어 50여 종목의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강원도의 산간오지로만 평가되었던 정선군은 근래에 이르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 정선군의 생활권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선 5일장(공설시장) 권역은 정선읍 소재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시장과 관광을 연계한 대규모의 손님들이 찾는다. 카지노 리조트 권역은 고한읍 박심 지구에 2000년 10월 개장한 강원 카지노 리조트가 중심이 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대중형 카지노 단지를 핵심으로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콘도 등 최첨단 레저 시설이 조화된 가족형 종합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정선군은 관광자원의 개발 차원에서 다양한 여가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5일장 관광열차, 화암동굴과 화암약수, 아우라지 강

변 등이 그것이다. 아우라지 강변(북면 여량리)은 앞서 말한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이다. 이 곳에서는 아우라지 처녀의 연정을 느끼고, 구절리 오장폭포 및 노추산에서 신라의 설총과 조선의 율곡 이이 선생이 공

부했다는 이성대(二聖臺)를 오를 수 있다.

한편 지역문화예술행사로 ‘정선 아리랑제’ 외에도 ‘민둥산 억새풀 축제’, ‘정선헌기대축제’, ‘아우라지 뗏목 축제’, ‘석탄 문화제’ 등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